

광주시, 새해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도입한다

수요자 중심 저출생 대응 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 여성자영업자 대체인력비 "양육 부담·경제적 어려움 도움"

광주시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와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휴일·야

간영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1인 여성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와 '1인 여성자영업자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1자녀 기준 총 360만원(1개월당 60만원, 6개월 간), 2자녀 기준 총 540만원(1개월당 90만원, 6개월 간) 한도 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아동 양육자는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여명이다.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 확인 때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총 300만원(1개월당 100만원, 3개월 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50명이다.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중고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저출생정책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소상공인

들은 상대적으로 출산·양육 지원에서 소외됐다. 광주시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공지사항)과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아응원 패키지' 서비스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광주아

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1월 중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대상자를 발표(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의 저출생 지원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전남지역, 뱀 관련 지명 42곳 '전국 최다'

고흥 사도·광양 금골마을 등 "지명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전남도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 해를 맞아 전국 30만여 개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뱀 관련 지명 210여 개 전남이 4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십이지 중 뱀은 구약성서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교활함의 대명사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알과 새끼를 낳아 다산과 풍요·재물의 가복신(家福神)으로, 지혜와 예언 능력·끈질긴 생명력과 죽은 이의 부활과 영생을 돕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뱀 지명은 종류별로 마을이 27개, 계곡 및 섬이 각각 5개, 산 3개, 골짜기 2개다.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6개, 광양시가 5개, 여수시·보성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이 각각 3개며, 나주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이 각각 2개 등이다.

뱀 관련 지명 중 뱀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뱀처럼 긴 모양의 섬으로 '장사도',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골' 등이 있다.

뱀의 모양을 묘사한 지명 중 뱀이 개구리를 쫓아가는 지형인 '장사추와형(長蛇追蛙形)'은 먹을 것이 풍부한 좋은 터로, 풍수지리학자들이 일컫는 명당의 하나다.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의 사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사도의 지형이 뱀형인데다 마을 앞에 와도라는 섬이 있어 뱀이 개구리를 잡기 위해 건너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지형이 금뱀이 엮드려 숨어 있는 '금사복지혈(金巳伏池穴)'로 금곡이라 불리는 광양 곽양동 금골마을 또한 풍수지리학자들이 명당으로 부르는 곳 중 하나다.

순천 서면 지분리 구룡마을은 마을 뒷산의 산맥이 뱀과 같고 아홉개의 산맥이 있어 사구실로 부르다가 이후 구룡이라 바뀌 부르고 있다.

고시된 지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지명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 5·18민주묘지 참배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이개호·문금주 의원 등 전남 10개 지역위원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한중 장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 등이 1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김 지사 "정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신속한 이행을"

'국립한국제일대' 대학통합 신청 "대국민 약속...반드시 지켜져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 정부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대, 순천대는 전남 교육부에 '(가칭)국립한국제일대학교'를 이름으로 한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학통합 신청서에는 통합 목적 및 기대 효과와 더불어 양 대학의 특성화 비전 및 실현 목표 등이 담겼다. 양 대학은 대학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체계 강화 및 의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1탄핵 정국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한 지역 현안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약속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치권, 내년 교육부에 신설될 의대교육지원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계에도 전남 의대 설립 당위성 및 의대 정원 배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양 대학이 2026년 3월 통합대학 개교를 위해 '(가칭)국립한국제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역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담은 대학통합과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